

제6장 사성제 - 고집멸도(苦集滅道)

(1교시)J_stJo01_030922_01

◎ 붓다의 깨달음

왕족으로 태어난 붓다는 안락하고 풍족한 생활을 보내던 중 인생의 밑바닥에 잠겨 있는 괴로움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전설적으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모습, 또는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사문(沙門)을 목격한 이른바 사문출유(四門出遊), 또는 사문유관(四門遊觀)으로써 설명된다. 붓다는 29세 때 고(苦)의 본질 추구하고 해탈(解脫)을 구하고자, 처자와 왕자의 지위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였다.

그는 두 선인을 찾아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이라는 선정(禪定)을 배웠다. 그것은 일종의 정신통일에 의하여 하늘에 태어나 보려는 것이었는데, 붓다는 그들의 방법으로는 생사의 괴로움을 해탈할 수 없다고 깨닫자, 그들로부터 떠나 당시 출가자의 풍습이었던 고행(苦行)에 전념하였으나, 신체가 해골처럼 되었어도 해탈을 이룰 수는 없었다. 그는 6년간의 고행 끝에 고행을 중단하고, 목욕을 한 뒤 우유죽을 먹고 다시 보리수 아래에 자리 잡고 깊은 사색에 정진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 붓다의 첫 설법

붓다가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의 가장 큰 고민은 누구에게 이것을 설법해야 하는 가였다. 삼매에 든 붓다는 깨달음의 내용이 매우 심오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설하기를 주저하였다. 이 때 최고의 신인 범천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중생을 위해 설법해 주실 것을 세 번이나 간청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붓다는 자신을 타락한 사문이라 비난하고 떠났던 다섯 사문을 찾아가 첫 설법을 행하기로 하였다. 사슴동산에 있던 다섯 사문은 멀리서 붓다를 보고 아는 체도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그가 다가오자 그 위엄과 자비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자리를 권하였다. 이리하여 붓다가 그들을 위해 첫 설법을 시작하였다고 말하여진다. 이 첫 설법이 중도와 사성제 등을 설하여 연기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라고 믿어지나 붓다는 다섯 사문에게 사성제를 불교에 첫 입문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듯 할 필요 없이 중도를 택하는 테크닉만 가르쳤을 것이라 짐작된다. 붓다는 스스로를 ‘여래(Tathagata)’라고 부르려 했는데 이는 tatha와 gata혹은 agata의 합성어로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발견한 자’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는 불교의 자연과학적인 종교관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교시)J_stJo01_030922_02

◎ 사성제: 붓다의 깨달음을 가르치기 위해 이론적 틀을 세운 것. **고집멸도(苦集滅道)**.

◆ 고제

고(苦諦): 일체개고 Sarvam Duhkham = 모든 것은 고통(고)다.

일체

- 1) **12처 자체가 고통**. 즉 인간 경험의 본질이 고통.
- 2)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한 자나 깨닫지 못했던 이전의 삶 자체를 돌아볼 때 그것 모두가 고통이었음을 직시하는 것.**

고(苦)

사고(四苦): 생, 노, 병, 사의 고통

팔고(八苦): 생노병사의 四苦에 더한 4가지 고통

애별리고 愛別離苦: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을 수 없는 괴로움

원증회고 怨憎會苦: 미운 사람과 마주치지 않을 수 없는 괴로움

구득부고 求不得苦: 구하여도 얻지 못하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

오취온고 五取蘊苦: 오온을 직시하지 못하고 집착하여 생겨나는 괴로움

이 고제는 다시 **3종고**로 분류되기도 한다.

1. 고고 Duhkha Duhkha: 오취온고를 제외한 괴로움들.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고통 (suffering by nature).
2. 괴고 Viparinama Duhkha: 괴(壞)자는 '파괴된다, 부서진다'는 뜻으로 집착을 갖는 사물(事物)이 파괴, 변화(變化)해 갈 때 느끼는 정신적(精神的) 괴로움.

3. 행고 Samskara Duhkha: 모든 것이 변화되어 달라져 버리는 데서 오는 고통. 현상계(有爲法)가 모두 무상하기 때문에 윤회(輪廻)를 면할 수 없음에서 오는 괴로움이다.

(3교시)J_stJo01_030922_03

◆ 집제

집(集諦): 고의 발생에 관한 진리. 5온에 대한 집착-갈애. 이것은 모든 욕망의 근저가 되는 욕망이며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다. 행복을 구하는 것도 욕망의 일종이지만 갈애는 그것과는 달리 욕망의 근본에 있는 불만족성을 말한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 멸제

멸(滅諦): Nirvana. 고통이 멸한 상태(붓다가 도달한 상태). 갈애가 남김없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며, 이것은 이상적 경지로서 열반(涅槃)이라고 한다. 또한 마음이 갈애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해탈(解脫)이라고도 한다.

◆ 도제

도(道諦): 고(苦)와 집(集)의 멸을 실현하는 길을 도제라고 한다. 이 수행방법은 8정도(八正道) 또는 팔성도(八聖道)로 표시된다.

팔정도(八正道)

정견(正見): 올바른 견해. 경전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것.

정사(正思):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되는 것.

정언(正言):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정업(正業): 바른 행위의 결과. 신업, 구업, 의업으로 나뉨.

정명(正命): 출가 수행자들의 해야 할 바.

정정진(正精進): 동요하는 것을 붙잡는 힘.

정념(正念): 정정의 준비 단계로, 정정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힘.

정정(正定): 정념의 일상화. 적정성의 경지를 유지함.

정견(正見)

붓다의 가르침, 경전을 믿는 것.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으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정견이 있어야 나머지 칠정을 이룰 수가 있다. 오온에서 일어나는 것이 모두 무상함을

통찰하는 것을 바로 정견이라 한다.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의 수행 순서에 있어 정견부터 순서대로 이루어져 정정에 이르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 3가지 수행, 삼학

불도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수학(修學)하지 않으면 안 될 세 가지 규범.

계(戒): 윤리적인 삶, morality. 정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그러나 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에 들기 위한 필수적인 예비수행이므로 중요하다.

정(定): 삼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선정을 얻게 되는 것. 많은 인도의 전통이 선정 자체를 목적, 도달점으로 삼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려는 불교와는 차이가 있다.

혜(慧): 지혜.

문소성: 많이 읽고 들어 얻는 것.

사소성: 읽은 것, 들은 것을 사유하여 얻는 지혜.

수소성: 선정을 통해 얻는 지혜.

<참고자료-학생 프로토콜>

제6강 사성제 - 고집멸도(苦集滅道)

02학번 영어영문과 S학생

붓다의 깨달음과 첫 설법

붓다는 잘 알려져 있듯이 왕족으로 태어나 왕족의 교양에 필요한 학문·기예를 배우며 성장하였다. 그 생활은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부하였음에 틀림없다. 당시의 풍습에 따라 그는 16세에 결혼하였다. 부인은 야쇼다라[耶輸陀羅]라고 하며, 곧 아들 라홀라[羅羅]도 얻었다. 이같이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내던 중 붓다는 인생의 밑바닥에 잠겨 있는 괴로움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전설적으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모습, 또는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사문(沙門)을 목격한 이른바 사문출유(四門出遊), 또는 사문유관(四門遊觀)으로써 설명된다. 붓다는 29세 때 고(苦)의 본질 추구하고 해탈(解脫)을 구하고자, 처자와 왕자의 지위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였

다.

그는 두 선인을 찾아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이라는 선정(禪定)을 배웠다. 그것은 일종의 정신통일에 의하여 하늘에 태어나 보려는 것이었는데, 붓다는 그들의 방법으로서는 생사의 괴로움을 해탈할 수 없다고 깨닫자, 그들로부터 떠나 당시의 출가자의 풍습이었던 고행(苦行)에 전념하였으나, 신체가 해골처럼 되었어도 해탈을 이룰 수는 없었다. 그는 6년 간의 고행 끝에 고행을 중단하고, 목욕을 한 뒤 우유죽을 먹고 다시 보리수 아래에 자리잡고 깊은 사색에 정진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붓다가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의 가장 큰 고민은 누구에게 이것을 설법해야 하는 가였다. 삼매에 든 붓다는 깨달음의 내용이 매우 심오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설하기를 주저하였다. 이 때 최고의 신인 범천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중생을 위해 설법해 주실 것을 세 번이나 간청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붓다는 자신을 타락한 사문이라 비난하고 떠났던 다섯 사문을 찾아가 첫 설법을 행하기로 하였다. 사슴동산에 있던 다섯 사문은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타락한 붓다에게 아는 체도 하지 않기도 하였으나, 그가 다가오자 그 위엄과 자비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자리를 권하였다. 이리하여 붓다가 그들을 위해 첫 설법을 시작하였다고 말하여 진다. 이 첫 설법이 중도와 사성제 등을 설하여 연기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라고 믿어지나 붓다는 다섯 사문에게 사성제를 불교에 첫 입문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듯 할 필요 없이 중도를 택하는 테크닉만 가르쳤을 것이라 짐작된다. 붓다는 스스로를 여래(Tathagata)라고 부르려 했는데 이는 tatha와 gata혹은 agata의 합성어로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발견한 자’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는 불교의 자연과학적인 종교관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중도 - 붓다가 가르친 고와 락의 중도란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의 중도가 아닌 극단적 고행(고苦)으로써 깨달음을 얻으려는 자와 브라만과 같이 속세에 평범히 지내면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자의 중도를 말하는 것이다.

12연기 - 고통발생의 메카니즘과 고통해소의 메카니즘

전생 현생 내생 3생 윤회를 설명하는 기본이 된다

사성제

1. 고 (苦諦)- 고통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2. 집 (集諦)- 고통의 발생에 관한 진리. 5온에 대한 집착-갈애. 이것은 모든 욕망의 근저가 되는 욕망이며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다. 행복을 구하는 것도 욕망의 일종이지만 갈애는 그것과는 달리 욕망의 근본에 있는 불만족성을 말한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3. 멸 (滅諦)- Nirvana 고통이 멸한 상태(붓다가 도달한 상태). 이 갈애가 남김 없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며, 이것은 이상적 경지로서 열반(涅槃)이라고 말한다. 또한 마음이 갈애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해탈(解脫)이라고도 한다.

4. 도 (道諦)- 고(苦)와 집(集)의 멸을 실현하는 길을 도제라고 한다. 이 수행방법은 8정도(八正道) 또는 팔성도(八聖道)로 표시된다.

고제

일체개고-Sarvam Duhkha

일체: 1)생활이나 경험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처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경험의 본질이 고통이라는 것을 지적

2)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한 자나 깨닫지 못했던 이전의 삶 자체를 돌아볼 때 그것 모 두가 고통이었음을 직시하는 것(retrospective)

사고(四苦)- 생, 노, 병, 사의 고통.(중국에서는 생(生)이 고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생(生)이 곧 이어지는 노, 병, 사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고 믿어졌다)

팔고(八苦)- 4고에 더하여

애별리고 愛別離苦: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을 수 없는 괴로움

원증회고 怨憎會苦: 미운 사람과 마주치지 않을 수 없는 괴로움

구득부고 求不得苦: 구하여도 얻지 못하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

오취온고 五取蘊苦: 5온을 직시하지 못하고 집착하여 생겨나는 괴로움

이 고제는 다시 3종고로 분류되기도 한다

1.고고 Duhkha Duhkha: 오취온고를 제외한 괴로움들.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고통 (suffering by nature).

2.괴고 Viparinama Duhkha: 괴(壞)자는 '파괴된다, 부서진다'는 뜻으로 집착을 갖는 사물(事物)이 파괴.변화(變化)해 갈 때 느끼는 정신적(精神的) 괴로움이다

3.행고 Samskara Duhkha: 모든 것이 변화되어 달라져 버리는 데서 오는 고통. 현상계[有爲法]가 모두 무상하기 때문에 윤회(輪廻)를 면할 수 없음에서 오는 괴로움이다.

도제

팔정도(八正道)

정견(正見): 바른 견해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정사(正思): 올바른 생각, '바른 의도'로서, 적극적인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올바른 마음가짐 또는 마음 챙기는 것이나 '완전한 의도'를 뜻한다. 마음에 망상분별이 끊어지면 경계를 대하되 어느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는 지혜로써 저절로 바른 생각을 갖게 된다.

정언(正語): 마음에 망상분별이 끊어지면 말하는 데에 있어서 저절로 거짓됨을 찾을 수 없게 되니, 이것을 정어(正語)라고 한다

정업(正業): 마음에 망상분별이 끊어지면 저절로 바른 지혜가 나타나서 일체의 행위에 조금도 삿됨이 없게 되니, 이것을 정업(正業)이라 한다

정명(正命): 마음에 망상분별이 끊어지면 저절로 삼독(三毒)에 물듦이 없어서 일상생활 이 조금도 이치에 어긋남이 없게 되니, 이것을 정명(正命)이라 한다

정정진(正精進): 마음에 망상분별이 끊어지면 바로 참다운 자성의 모습이라, 이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 말고는 따로 올바른 수행이 없으니, 이것을 정정진(正精進)이라 한다

정념(正念): '수동적 주의집중의 상태'

정정(正定): 마음에 망상분별이 끊어지면 고요하면서도 안팎이 뚜렷이 밝은 경계가 다함이 없으니, 이것을 정정(正定)이라 한다.

정견- 결국 붓다의 가르침, 경전을 믿는 것을 이른다. 그러나 이 믿음은 faith보다는 conviction이나 belief에 가깝다. 아직 체득은 되지 않았지만 이성적으로 확정함을 뜻 한다.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으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견이다. 정견이 있어야 나머지 칠정을 이룰 수가 있다. 오온에서 일어나는 것이 모두 무상함을 통찰하는 것을 바로 정견이라 한다. 그러나 이 팔정도의 수행 순서에 있어 몇몇 경전에서는 정견부터 순서대로 이루어져 정정에 이르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편의상의 설명방법이고 실제로는 동시에 팔정도를 모두 병행하며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각각의 팔정도가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할 법이라기보다는 동시에 병행해서 닦는 것이다.

3가지 수행: 계정혜의 삼학은 불도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수학(修學)하지 않으면 안 될 세 가지 규범이다

-계: 윤리적인 삶 morality (8정도의 2,3,4,5,)

-정: 삼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선정을 얻게 되는 것

-혜: 지혜

계- 뗏목에 자주 비유되어 정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에 들기 위한 예비수행으로 여겨지므로 중요하다

정- 많은 인도의 전통이 '정' (선정)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나 불교는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차이가 있다.

혜-문소성: 많이 읽고 들어 얻는 것

사소성: 읽은 것, 들은 것을 사유하여 얻는 지혜

수소성: 선정을 통해 얻는 지혜

질문>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득고가 모두 오취온고에서 비롯된 하위 개념처럼 보여지는 것과, 고고, 괴고가 행고에서 비롯된 하위 개념으로 보여지는 것은 모두 마치 무상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끼워 넣어 8고, 3종고라는 체계를 억지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불교 교리의 개념들이 결국은 ‘무상’이라는 근원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이 아닌지요.